

이야기 카드 1

축제 무대 일주일 전

지율이는 학교 축제에서 처음으로 기타를 친다. 연습 때마다 같은 마디에서 틀리고, '무대에서 망하면 어떡하지'라는 생각이 커진다.



이야기 카드 2

서술형 문제 앞에서

태민이는 수학 서술형 문제만 보면 '난 원래 못 해' 하고 펜을 내려놓는다. 이번에는 짝 로운이가 "첫 줄만 같이 써 보자"고 했다.



이야기 카드 3

그냥 하는 말이겠지

다은이는 모둠 친구에게서 '네가 정리해 줘서 발표가 쉬웠어'라는 카드를 받았다. 처음엔 '그냥 하는 말이겠지' 싶었지만, 카드를 필통에 넣어 두었다.